

DIMANCHE
디망쉬
우리 [공연]

2024.07.03. WED -
2024.07.11. THU
우란2경

작·연출 Julie Tenret, Sicaire Durieux, Sandrine Heyraud
출연 Thomas Dechaufour, Shantala Pèpe, Julie Dacquín
제작 Focus&Chaliwaté
주최 우란문화재단, Aurora Nova

우란문화재단
WOORAN FOUNDATION

FOCUS & CHALIWATÉ

présentent

DIMANCHE

écriture et mise en scène

JULIE TENRET, SICAIRE DURIEX
& SANDRINE HEYRAUD

디망쉬



UN SPECTACLE DES COMPAGNIES FOCUS ET CHALIWATÉ, EN COPRODUCTION AVEC LE THÉÂTRE LES TANNEURS, LE THÉÂTRE DE NAMUR, LA MAISON DE LA CULTURE DE TOURNAI/MAISON DE LA CRÉATION, LE SAB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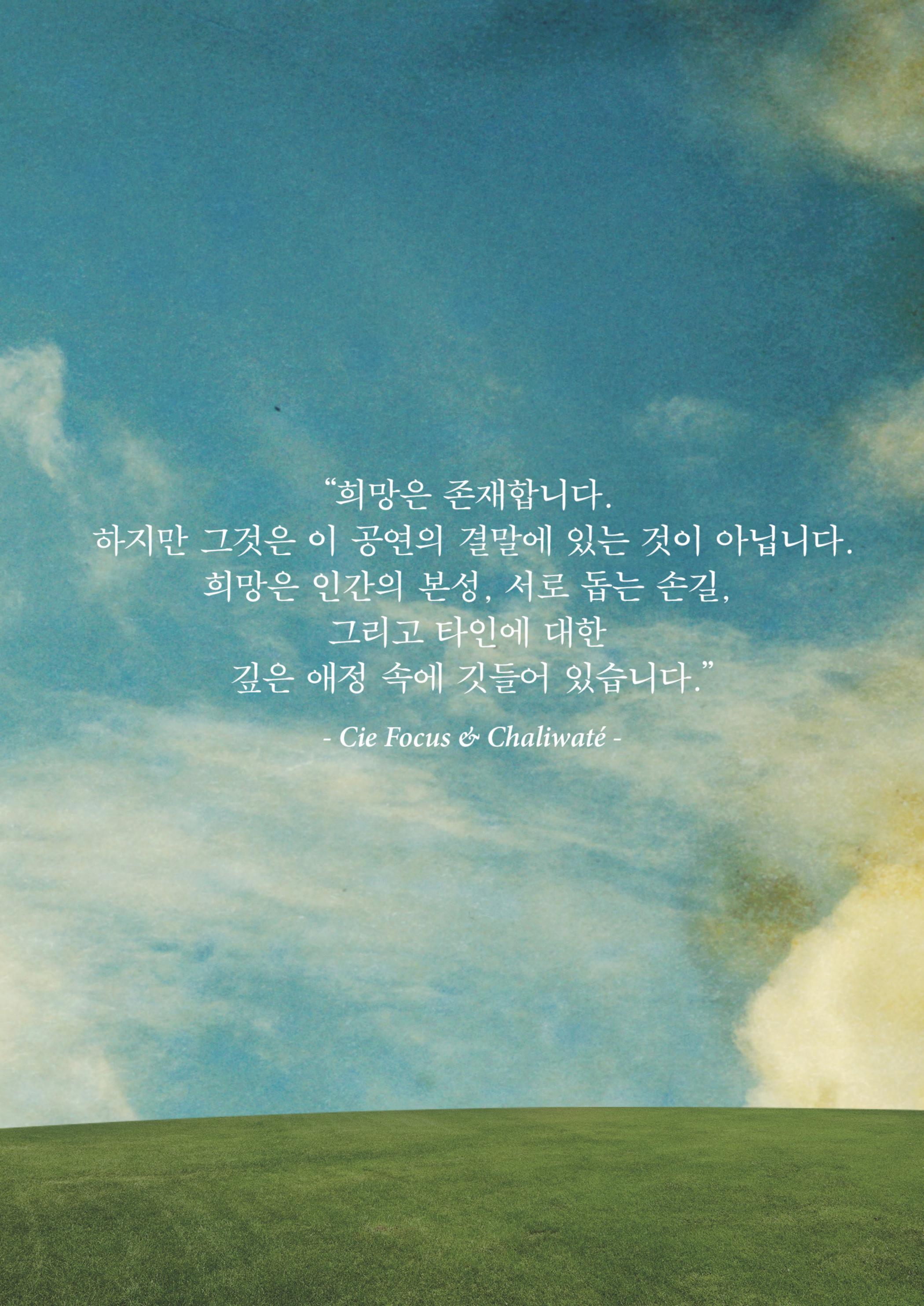
— IFS (FR), ARTS AND IDEAS NEW HAVEN (ÉTATS-UNIS), ADEL AÏDE FESTIVAL (AUSTRALIE), AUCKLAND ARTS FESTIVAL (NOUVELLE-ZÉLANDE)

THÉÂTRE VICTOR HUGO DE BAGNEUX, SCÈNE DES ARTS DU GESTE / EPT VALLÉE SUD GRAND PARIS ET LA COOP ASBL / AVEC LE SOUTIEN DE LA FÉDÉRATION WALLONIE-BRUXELLES — SERVICE DU CIRQUE, DES ARTS FORAINS ET DE LA RUE ET DE LA LOTERIE NATIONALE, DE WALLONIE-BRUXELLES INTERNATIONAL (WBI), DE LA BOURSE DU CAPT, DE LA COMMISSION COMMUNAUTAIRE FRANÇAISE, DE SHELTERPROD, DU TAXSHELTER.BE, ING ET DU TAX-SHELTER DU GOUVERNEMENT FÉDÉRAL BELGE / AVEC L'AIDE DE ESCALE DU NORD — CENTRE CULTUREL D'ANDERLECHT, CENTRE DE LA MARIONNETTE DE TOURNAI, LA ROSÉRAIE, LATITUDE 50 — PÔLE DES ARTS DU CIRQUE ET DE LA RUE, ESPACE CATASTROPHE, CENTRE CULTUREL JACQUES FRANCK, MAISON DE LA CULTURE FAMENNE-ARDENNES, CENTRE CULTUREL D'EUPEN, LA VÉNERIE, LE CENTRE CULTUREL DE BRAINE L'ALLEUD,

LE ROYAL FESTIVAL DE SPA, LE THÉÂTRE MARNI, L'ESCAUT, BRONKS, AD LIB DIFFUSION, AD LIB PRODUCTION - RÉSIDENCES AU LIBITUM, LOOKIN' OUT ET LE FESTIVAL XS

© TRISTAN GALAND AND ATELIER DESIGN





“희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공연의 결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인간의 본성, 서로 돕는 손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 Cie Focus & Chaliwaté -

FOCUS & CHALIWATÉ <DIMANCHE 디망쉬>
아시아 최초 오리지널 프로덕션 초청공연!

2024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50주년 기념페스티벌 공식초청작

2023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초청작

2020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공식초청작

개인의 삶과 일상의 경험을 통한 보편적 문제에 대한 조망
배우, 신체, 움직임, 오브제, 인형 그리고 비디오가 어우러지는
허구 같은 현실과 현실 같은 허구, 그 어딘가.





SYNOPSIS

<DIMANCHE>는 세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들이 전하는 세 가지의 자연 재해- 지구온난화, 허리케인, 그리고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야생동물 취재팀 여정에의 동행이자, 한 가족의 은밀한 일상 생활에 대한 관찰이다.

평범한 집, 한 가족이 있다. 가족들은 각자 매일매일의 루틴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이 작은 세상에서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 '끝'이란 저 먼 미래에나 있는 것일 뿐. 아니, 사실 그 '끝'이라는 생각조차도 어리석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조금 조금씩, 자연의 거대한 재앙으로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형되고 부서져가지만, 가족들은 일상의 습관들을 고수하려 애쓴다. 결국 그들의 삶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길 위, 한 취재팀이 있다. 뉴스캐스터, 카메라맨, 소품/음향기술자. 그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종말이 도래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로 멸종 위기 종(種)의 최후의 개체를 촬영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그들이 전하는 단 한 번의 보도는 자연재해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창작진 인터뷰

FOCUS & CHALIWATÉ

Q. <DIMANCHE 디망쉬(이하 DIMANCHE)>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DIMANCHE'는 불어로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연이 전개되는 시간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휴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요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 25분짜리 단편 <BACK UP>으로 첫 선을 보인 뒤, 2019년 장편 공연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극단 FOCUS와 CHALIWATÉ의 첫 협업 작품입니다.

Q. <DIMANCHE>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두 극단은 각자의 공연을 투어 하면서 자주 마주치며, 서로의 작품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FOCUS'는 오브제와 인형, 배우, 영상을 결합해 공연을 만들고 'CHALIWATÉ'는 대사 없이 오브제와 움직임, 마임 등 신체극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연극의 형태, 즉 언어(대사)는 없이 정교한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연극에 대한 공통의 취향을 바탕으로 2016년 자연스럽게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공연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DIMANCHE>를 만드는 데에는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해에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고 이미지가 있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매우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공연에서의 언어(대사)의 부재는 명확한 이야기의 흐름을 가진 시각적 창의성과 비언어적 표현의 정교함을 높여줬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무대 위에서 실험해보는 데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무대화 해보고, 수정하고, 각색하며 무엇이 실재로 작용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작가이면서 연출이자 배우였기에, 연습 장면을 촬영하거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들을 확인하며, 마치 악보처럼 모든 움직임과 제스처들이 정확히 약속되고 정교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Q. 많은 창작진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외부의 시선으로, 주기적으로 우리의 작업을 보고 피드백을 아끼지 않은 알라나 오스본(Alana Osbourne)을 비롯하여, 매우 훌륭한 창작진들이 공연에 함께 했고 그들은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조아킴 자닌(Joachim Jannin)의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인형과 조에 텐렛(Zoe Tenret), 세바스티앙 문치(Sébastien Munch)가 만든 소품은 최종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인형들을 조작했을 때,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대사가 없는 공연이기에 브리스 카나보(Brice Cannavo)가 만든 음향은 공간을 만들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리스탄 갈란드(Tristan Galand)와 함께 취재팀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교적이지만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창작 과정에서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Q. <DIMANCHE>의 구성과 연출, 표현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관객들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 작품은 기후 변화를 직면하여 '무엇인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우리의 일상의 루틴과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의 부족' 사이의 간극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과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극한 상황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의 습관들을 고수하려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통해 우리는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많은 초현실적인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빌 워터슨(BILL WATTERSON)의 '캘빈 앤 홉스 CALVIN AND HOBBS'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현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Q. 한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예술과 유머, 그리고 시가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자와 과학자들은 사실을 알려주지만, 예술가들은 다른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꿈을 꾸고 싶은 욕망을 주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자극을 줍니다. 연극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두 함께 꿈을 꾸는 것,

함께 무엇인가를 보는 것, 우리 앞에서 움직이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경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연극은 다른 어딘가로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DIMANCHE>의 유머러스한 접근방식은 우리의 안정감을 지켜주고, 삶의 우여곡절들에 덜 무너지게 해줄 것입니다.

비극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고, 유머는 균형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기를, 동시에 마법 같은 순간의 경험을 통해 놀라움과 열정을 가지고 객석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공연이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영감을 주고 이를 찬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토론을 유도하고 실현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CREDIT

FOCUS & CHALIWATÉ

Written and Directed by Julie Tenret, Sicaire Durieux, Sandrine Heyraud

Cast Thomas Dechaufour, Shantala Pèpe, Julie Dacquain

Dramaturgy Alana Osbourne

Lights Guillaume Toussaint Fromentin

Sound Brice Cannavo

Sound for Backup Loïc le Foll

Scenography Zoé Tenret

Stage Set Construction Zoé Tenret, Bruno Mortaignie (LS Diffusion), Sébastien Boucherit and Sebastien MuncK

Puppets Waw! Studios/Joachim Jannin and Jean-Raymond Brassinne

Puppet creators' assistants Emmanuel Chessa, Aurélie Deloche and Gaëlle Marras

Video and photography Tristan Galand

1st AC Alexandre Cabanne

Key Grip Hatuey Suarez

Underwater filming Alexandra Brixy

Video Post-Production Paul Jadoul

Sound (Video) Jeff Levillain (Studio Chocolat-noisette) et Roland Voglaire (Boxon Studio)

General Stage Management Léonard Clarys

Stage Management Leonard Clarys with Isabelle Derr, Hugues Girard,

Nicolas Ghion, David Alonso Morillo, Charlotte Persoons, Liane Van De Putte or Baptiste Wattier

Tour manager Chiara Christoffersen

국내 스태프

조명슈퍼바이저 황규연

조명크루 김남수 배준서 윤효영 이형진 전규상 정요셉

음향슈퍼바이저 김유현

프로덕션엔지니어 양수연

엔지니어 김동건

음향장비 오디노트

영상슈퍼바이저 장지승

의상크루 김이슬

기술감독 전진

기술크루 강대성 명순용 문승환 유용준 정동균 정윤호

무대감독 김민주

프로덕션통역 이수빈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샘

홍보&티켓매니지먼트 김민영

티켓운영 장경숙

하우스매니저 민주은 오현지

로비 전시 엄아롱 作 <북극곰의 눈물>

프로덕션매니저 김영지

프로듀서 김혜리

줄리에 테넷(Julie Tenret)이 이끄는 극단 Focus는 벨기에 브뤼셀을 기반으로 오브제, 인형, 배우 그리고 영상이 결합된 공연을 만든다. 시각적 은유, 시적 표현, 예술적 세공을 본질로 하는 그녀의 무대언어는 영화의 작법과 아주 근접해 있다. 테넷은 친밀함과 평범함 것에서 출발하여 보편적인 것이 되는 사회적 이슈를 다룸으로써 모든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이자벨 다라(Isabelle Darras), 아그네스 림보스(Agnès Limbos)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공연 <Fragile>은 현재까지 250회 이상 공연되고 있다. 2011년에는 이자벨 다라와 함께 <Silence>를 제작하여 2014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다. 이 공연은 2015년 Maeterlinck Prize에서 청소년관객상과 'Youth Minister' 상을 수상하였으며, 35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005년 시카리우스 듀리외(Sicaire Durieux)와 상드린 헤이로(Sandrine Heyraud)가 창단한 극단 Chaliwaté는 대사가 없이 시각언어, 움직임, 마임, 오브제, 서커스와 무용 등을 통해, 암시와 은유의 이미지를 담은 신체극을 기반으로 하는 벨기에의 극단이다. 벨기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첫 번째 작품 <Joséphina>(2009)를 시작으로, 무대 연출과 창작 과정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찾고 워크숍에 참여하며,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년 관객을 위한 공연 <Ilo>에 이어, 2015년 Loïc Faure(Jongloic Company)와의 협업을 통해 <Jetlag>을 선보였으며, 2017년 극단 Focus와 함께 <Back up>(단편)과 <Dimanche>를 제작하였다. 2018년, 듀리외와 헤이로는 그들의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SACD Belgium Prize에서 'Gesture Theatre' 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공연]

장르와 소재, 표현 방식 등에 제약 없이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유형의 무대예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도와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콘텐츠를 발굴 및 제작하여 선보입니다.

우란문화재단은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고(故) 우란(友蘭) 박계희 여사(워커힐 미술관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귀한 꽃을 피우는 난(蘭)처럼, 치열한 문화예술 환경에 뿌리내리는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생태계를 고민합니다. 끊임없는 실험으로 낯선 소재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하고, 상업 논리에 갇히지 않은 양질의 공연·전시를 선보이는 등 만든 이와 보는 이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공존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최기원

공연팀 팀장 김혜리 PL 박예슬 PM 김영지, 박소영, 한주연, 허지원

전시팀 팀장 정지영 PL 김민정, 백승의 PM 이보영, 이소현

경영지원팀 팀장 편준우 PL 전진, 황규연 PM 박수연, 양수연, 이가행, 장지승